

한문 배우실분~ 절에 오세요

태고종, 포교수단으로 적극 활용 불자는 물론 지역주민 호응 높아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서울 은평구 백련사 한문학당에서 어린이들이 한문을 배우고 있다.

“노래 부르듯 리듬을 타고 따라 읽어 보세요. 보화(寶貨)는 용지유진(用之有盡)이요 충효(忠孝)는 향지무궁(享之無窮)이라. 이말은 보화는 쓰면 다함이 있지만 충성과 효성은 누리며 다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태고종 사찰인 서울 은평구 백련사 구암 스님이 아이들에게 쉼없는 목소리로 <명심보감>의 구절을 선창하고 있다. 법당에 모인 50여명의 어린이들은 엄숙한 분위기에 힘입어 최근들어 태고종 사찰에 한문학당이 속속 개설되며 새로운

포교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이나 학교 교육 등에서 한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회적 추세 때문에 한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찰이 발벗고 나선 것이다.

원주 미타사 정전 스님은 “요즘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한자쓰기를 두려워 하며 학교 교육에서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도 잘 못느끼는 것 같다”며 “한문학당 교육은 예절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열렸지만 원주 미타사 한문학당에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1백여명이 참여하는 등 열기가 뜨겁다. 이런 열기에 힘입어 최근들어 태고종 사찰에 한문학당이 속속 개설되며 새로운

현재 한문학당을 열고 있는 사찰은 서울 지역에 봉원사를 비롯해 법경사, 백련사, 부천 연흥사, 군산 성흥사, 원주 미타사 등이다. 하지만 한문학당이 의외로 지역주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포교효과가

한문학당 여는 태고종 사찰	
사찰	전화번호
봉원사	(02)392-3007
백련사	(02)302-0288
법경사	(02)3445-8604
연흥사	(032)348-6603
미타사	(033)342-3350
성흥사	(063)453-0050

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여름방학을 맞아 7월 중주 동봉사 등 3-4개 사찰이 개설을 준비중이다.

실제로 한문학당 운영 사찰의 대부분이 1백여명이 넘는 수강생을 확보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신청 마감에 따라 수강생을 비교적 많이 받는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할 정도로 생긴다고 종단 관계자는 귀띔한다.

지난해부터 한문학당의 교재가 다양해진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기존에는 <천자문>이나 <명심보감> 정도였지만 이제는 <금강경> <법구경> 등의 불교경전을 교재로 사용하는 사찰이 생겨났다.

백련사 교무부장 구암 스님은 “한문교육 외에 불교 포교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선 유교경전 일색의 교재에서 탈피해 소책자라도 불교경전을 재구성해 만들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백련사는 10년째 지역주민들을 위해 한문 교육을 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부터 서대문구청의 지원을 받아 별도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대다수 한문학당이 올해 여름방학을 계기로 청소년 중심에서 탈피해 일반인들에게도 문호를 넓히고 있어 도심 포교의 새 포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진각종 회당 대중사 탄생 104주년 기념 법회



“회당 대중사 탄생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청중 정신을 이어가자”

진각종을 창종한 회당 대중사 탄생 104주년 기념법회가 5월 10일 서울 성북구 종인원 무진설법전에서 봉행했다(사진).

유가심인당 주교 혜정 정사의 육자진언, 육자진언의 공덕, 심인진리, 자성법신, 은혜경 등 종조범이 불독에 이어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축사를 통해 “회당 대중사 탄생 104주년을 맞아 세상과 자연이 당체로써 설하는 은혜의 법문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각종 창종의 뜻을 더욱 크게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각합창단이 음성공양 한 봉축의 노래로 회향한 기념법회에는 혜일 총인예하를 비롯한 서울교구 스승님과 신행단체장, 종립학교장, 진각복지재단 산하 시설장, 신교도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회당 대중사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으며, 국내 외 각 심인당은 이날 오전 10시 일제히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 새터민과 함께 노인잔치



천태종은 5월 12일 단양체육관에서 ‘제6회 새터민과 함께하는 노인초청 호도 큰잔치’를 봉행했다(사진). 지역노인 1천여명과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 1백여명이 초청된 행사는 한민족예술단 초청 공연을 비롯해 노인 장기자랑, 구인사 참배 순으로 진행됐다. 김주일 기자



‘존중과 배려’ 병영문화 만들자

interview 군포교 발전기금 기탁한 2군 사령관 권영기 대장



5월5일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불자대상을 받은 2군 사령관 권영기 대장은 상급 전역을 군포교 발전기금으로 보시했다.

군내 종교활동 여건 개선 신앙 전력화에 힘쓸 계획

“군법사님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법당 시설 등 군포교의 제반 환경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병사들과 상담하거나 위문하기에도 많이 열악한 것을 잘 알기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불기 2550년 불자대상 상급 전역을 조계종 군종교구에서 군포교 발전 기금으로 회사한 2군 사령관 권영기 대장은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 등 군내 종교 활동을 개선해 신앙 전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불교의 경우 불자들이 보다 적극성을 갖고 국군불교총신도회 등 신도회에 동참해 군포교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육군 본부 불교회장, 국군불교총신도회장 등을 역임한 권 대장은 군불교 진흥과 포교, 민·군 불자 유대감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 불자대상으로 선정돼 5월 5일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상패와 수성금을 받았다.

권 대장은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 군법사 확충은 물론 군 불교의 주역인 불자 장병들이 신생활동에 보다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를 위해 군종교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종단 및 불자들의 관심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권 대장은 지휘관으로서 남의 종교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고서는 나의 종교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

시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명예 후원 석가모니불상(제료:불) 문의:02-2004-8291

요일 오전에는 부대 행사를 가끔씩이면 하지 말고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 2군 사령관으로 취임할 때도 교회, 성당을 먼저 찾아 인사를 한 다음 법당을 찾았다고 한다. 지금도 타종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신앙 전력화,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군내 종교활동을 틀림없이 지원하고 있다.

“종교는 다르지만 그 가르침은 서로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종교만 강조하지 않고 타 종교도 똑같이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가 있는 날이면 병사들이 종교 시설을 찾아 지난 날을 반성하고 오는 날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지휘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을 국가와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권 대장은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병영문화가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말한다. 장병들이 전역을 해도 군 생활이 인생에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 국민과 하나 되는 군대가 된다는 것. 그래서 부하들에게도 간부들이 앞장서서 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고 강조한다.

“마지막 남은 군 생활동안 장병들에게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 주고 싶어요. 특히 종교가 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더라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다면 사회가 얼마나 밝아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권 대장은 그동안 군 포교에 헌신해 온 종단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글·사진·김두서 기자 doobi@buddhapia.com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함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제를 갖추도록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부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군법당 위문: 소외된 군법당을 위한
- ▷군법당 건립 후원: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법사에 후원품 전달
- ▷법사 지원: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당을 지원
- ▷동참 및 문의: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만인 동참 ARS: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해광스님

스님만의 특유한 자연건강 비법과 약사여래 부처님의 원력으로 마음과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난치병 불치병 등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혜광(慧廣)스님을 아십니까?

KBS, MBC, 연합불교방송 등 방송매체와 35회 이상 언론에 보도된 혜광스님 (필명 李海堂)

성공한 사업가(전직 무역회사 회장, 수출탑 수상), 자연건강 연구가(자연건강 1급 지도사, 자연건강 연구 15년), 소설가, 투병생활 9년, 불기에 귀의(1989년, 1996년 법사계 전법), 외국(티벳, 태국)사원 자연건강 비법 전수, 한국 인물사(대한민국 역사편찬위원회 발행 1990)수료.

KBS 방영 - 이제는 중생 구제다 -

KBS의 “혜광스님의 자연건강 행복한 삶” 프로(2005.7.10 방영)에 특별 출연하여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중생들에게 새 삶의 희망을 주고자 70노구를 바치겠노라 다짐하며 자신의 투병생활 정소이자 비릿가 자신의 별장에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신 약사암(藥師庵)을 창건하다

거제도 바닷가 황토굴에서 새 생명을!

- 몸속에 가득 채워진 독소 (오염된 물, 공기, 중금속 오염, 약품과용, 가공식품)을 천연 황토동굴에서 제거 해야 한다 -

(스님과 친견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자신이 투병생활에서 얻은 결론이다.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산 1-3 약사암
(동부면 면사무소에서 1Km 거리, 면사무소-오송리 중간 우측)
전화 : (055)632-2483 / 휴대폰 : 018-591-1322

•인터넷 검색(혜광스님 관련)
http://www.cafe.daum.net/yaksaam
http://www.cafe.daum.net/Osongwon
http://www.cafe.naver.com/leehaedang
E-mail: lom1209@hanmail.net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관광과 방생을 한국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